2013210061 채윤병

누구나 현재 자신의 상황보다 내일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적자를 지양하고 흑자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은 탐욕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돌아간다.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 순간마다 최선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모두의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논할 때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라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 어떤 이득도 상대적인 손해를 만들지 않는가?

루이 15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었다고 해도, 태초에 왕이 생기기 이전에 비해 루이 15세는 더 부유해졌고 그의 부유를 위해 다수는 희생을 했다. 결국 지금부터 탐욕적 알고리즘을 지양하더라도 지금까지 탐욕적 알고리즘 때문에 받았던 피해를 되돌리려면 금욕을 너머 손해보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혁명이다. 다수의 평민들이 정치에 배제되지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 왕족에게 말한다. “너희가 손해를 보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인가? 혁명가들은 왕족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 존재할 경우 그 피해를 좁히기 위해 존재하는 이차적인 반작용의 피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G와 교주는 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루이 17세의 죽음도 슬퍼하듯이 카르투슈의 아우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G의 말을 교주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G가 “똑같이!”라고 외쳤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평민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했고 당연히 카르투슈의 아우의 죽음은 루이 17세의 죽음만큼 슬프게 취급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주는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루이 17세의 죽음과 카르투슈의 아우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을까? 바로 선(善) 때문이다.

카르투슈는 교주에겐 선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루이 17세와 왕족에 대해서는 감히 악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선을 강조하는 종교의 교주인 그는 선을 강조하니 평등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은, 즉 정의, 자유, 선은 하나가 아니다. 피해를 통해 보장받는 자유도 있고, 선과 반대되는 정의, 즉 악으로 실현하는 정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의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타인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의, 자유, 선은 침해될 수 있고, 그것들은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탐욕적 알고리즘이 피해를 만들지 않으리라고 믿고, 선은 항상 정의롭다고 믿고, 피해를 통한 자유가 없다고 믿는 이상 우리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교주와 같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 아닐까?